

조선후기 사치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김준형(고려대)

1. 들어가는 말
2. 조선후기 사치 풍조의 역사적 배경
3. 조선후기 사치의 장르별 문학적 형상화 양상
4. 사치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본 필기·패설·야담의 거리
— 맺는말을 대신하며

1. 들어가는 말

17세기 이후 조선의 서울은 이전의 서울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행정 중심지에서 상업도시로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17세기 이후 삶의 방식과 가치는 물론, 문학 향유 양상 까지도 전대와 일정한 차이를 두었음을 뜻한다. 중세 보편 이념과 근대 자본이 결합됨으로써 중세와 근대가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이러한 변환의 시발은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했다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7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20여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서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구의 증가로 서울은 이미 과포화 도시가 되었을 뿐더러 생활의 패턴 역시 그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주택, 경제, 위생, 범죄 등 전에 없던 도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범죄 양상만 놓고 보더라도 綱常에 대한 범죄가 대부분이던 전대와 달리, 이 무렵에는 경제 문제에 따른 범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¹⁾ 강상에 대한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의

1) 유승희, 「조선후기 청계천의 실태와 준천작업의 시행」, 『도시역사문화』 3, 서울역사박물관, 2005.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때의 범죄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었다.²⁾ 『審理錄』만 보더라도 빗 독촉 때문에 벌어진 살인 사건이 상당수에 달할 만큼 ‘돈’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심각했다.³⁾

다양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경제력은 새로운 권력으로 작용한다. 경제력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을 가진 자는 사치 문화를 조장하고, 유흥문화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시 한켠으로 밀려났다.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한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시 지식인들은 두 극점에 놓인 부류가 信義를 매개로 소통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⁴⁾ 그것은 이상일 뿐 현실이 되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입을 옷조차 없어 알몸 그대로 길거리에 쓰러져 시체가 되어야만 했던 백성,⁵⁾ 한편에서는 화려하게 치장한 加髻의 무계를 이기지 못해 목이 부러져 죽는 여인,⁶⁾ 극단적인 삶의 형태와 방식은 현실 그 자체였다.

이 글은 역사주의적인 시각에서 당시 사치 풍조 양상을 엿보고, 그것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문학 작품에 투영된 사치 양상을 찾아 나열하는 일은 문학 연구의 본질이 아니다. 보다 효과적인 논의를 꾀려면 이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터이다. 필자는 문학 장르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력이 만들어낸 권력의 부산물이라 할 사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학 장르마다 달리 나타나는

2) 이에 대해서는 조광의 「18세기 전후 서울의 범죄상」(『전통사론』 2,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1996)을 참조할 것.

3) 1782년 西部에 사는 金壽海는 누룩 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張福大를 폭행치사. 같은 해 西部에 사는 崔成輝는 吳贊柱의 빗 독촉에 자살. 1784년 西部에 사는 李福雲은 빗을 갚지 않는 曹潤徵을 絞殺. 1795년 西部에 사는 李分金이 누이의 돈을 갚지 않는 富全을 폭행치사. 같은 해 西部에 사는 朴仁興은 빗 독촉을 하는데 갑죽대던 金介不里를 폭행치사. 1799년 西部에 사는 종 金玆伊는 아내가 福德이에게 6문을 달라고 싸우는 것을 보다가 절굿공이로 처를 때린다는 게 잘못하여 말리던 李龍山을 죽임 등 빗 독촉과 관련한 살인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또한 범죄 장소 역시 경제적인 변화의 폭이 가장 컸던 西部 지역에 집중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 구체적인 범죄 양상에 대해서는 규장각본 『審理錄』을 참조할 것.

4) 김준형, 「청성잡기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학회, 2009. 이 글은 앞의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다.

5) 『純祖實錄』 15년(1815) 1월 10일.

6) 李德懋, 『靑莊館全書』 「士小節」, <服食>.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가 혹은 찬자의 개인적인 사상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장르가 지닌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개연성이 높다. 즉 사치라는 하나의 객체를 두고, 실재한 역사 현상과 문학 장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 그리고 이 글을 그 목적을 완성해가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2. 조선후기 사치 풍조의 역사적 배경

17세기 이후 서울은 상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그에 따라 소비 행태도 달라졌다. 17세기 이전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기능 소비가 전부였다면, 이 시기는 기능 소비 외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 소비가 넘쳐났다. 상징 소비를 넘어서서 타자와 구별 짓기 위한 소비 행태인 사치도 나타났다. 재화의 효용 가치가 실생활에 요구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서 남들과 차별화를 위한 과시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로 옮겨간 것이다.

물론 사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특히 연산군 시대에는 임금도 직접 사치를 권장할 만큼 거기에 적극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때의 사치는 특수 계층에 한정된 소비 패턴이었을 뿐이다.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일상적이며 자발적으로 소비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때는 17세기를 지나면서부터였다. 특히 正祖 대에는 ‘사치와의 전쟁 시대’라 불려도 좋을 만큼 사치가 일상에까지 깊이 침윤하였고, 그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사치는 근검을 기반으로 하는 왕도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조가 童蒙敎官 崔崑의 상소에 비답하며 “사치를 억제하라. 검소한데도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나라가 없고, 사치한데도 위태롭지 않았던 나라가 없다. 이런 일이야 어찌 지혜로운 자들만이 알 수 있겠는가?” 라고⁸⁾ 말한 것도 그러하

7) 이에 대해서는 한국고문서학회 편,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역사비평사, 2006. 93~94면)을 참조할 것.

8) 『正祖實錄』 20년(1796) 3월 22일. 抑奢侈! 儉而未有不治之國, 奢而未有不殆之邦, 豈俟智者可以知之?

다. 사치 풍조는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백성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⁹⁾ 그렇지만 사치 풍조는 이미 견잡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임금의 직접 節用하는 등 모범을 보이며 사치 풍조의 흐름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붓물처럼 터져버린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의·식·주에 대한 사치는 극에 이르렀다. ‘복식과 음식 가운데 전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질박했던 것이 사치스러워진 게 한둘이 아니었다.’¹⁰⁾ 식의 『實錄』 기록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사치는 그 만큼 실생활에 만연해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보자.

① 근래 사치하는 풍습이 문득 고질적인 폐단으로 되어 버렸으니, 그것은 비단 鬚髮에 관한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다. 의복과 음식에 대한 사치와 車馬와 第宅에 대한 화려함이 더욱 점점 더 사치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돌러가면서 서로들 모방하여 한 사람이 비단옷을 입으면 백 사람이 따라서 입고, 한 집에서 담장을 높이면 백 집에서 이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물들어 습속으로 굳어진 탓으로 어떻게 수습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간혹 거친 음식에 배움을 입고 낮은 수레에 파리한 말을 맨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떼 지어 비웃으면서 비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더럽혀진 인심과 날로 저속해진 世道에 있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¹⁾

② 풍속은 사치를 숭상하고 백성들은 末技를 붙좃는 일이 많다. 도성의 남쪽에는 화려한 집들이 이어졌으며 가난한 선비는 계딱지만한 집도 없으며, 조정에는 좋은 가죽옷을 입는 풍속이 극에 달하되 궁핍한 백성들은 누더기 옷도 입기를 걱정하고, 부자는 진수성찬도 배불러 마다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겨로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근본은 생산을 많이 하여야 하는데 음식점에 늘어난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는 백성들보다 많으며, 저자의 목로판에서 술을 파는 여자는 벼를 위에 앉은 여자보다 갑절이

9) 『正祖實錄』 4년(1780) 11월 10일. 지금 나라의 용도는 날로 고갈되고 백성의 생활은 날로 곤궁하니, 이는 전적으로 사치의 풍습이 조성된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10) 『正祖實錄』 1년(1777) 7월 18일. 衣服飲食之制, 古無而今有, 古儉而今奢者, 不可一二計矣.

11) 『正祖實錄』 3년(1779) 2월 25일.

나 됩니다. 사람들은 잇속을 따지는 데만 익숙하고 풍속은 날로 박해지며 백성들은 농사를 게을리 하고 놀면서 먹는 사람이 날로 많아집니다. 원하건대 속히 검소를 장려하는 방도를 취하고 사치를 숭상하는 풍속을 엄하게 바로잡으며 지방의 수령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는 일을 권하여 근본에 힘쓰도록 하여야 합니다.¹²⁾

정조 시대의 사치 풍습이 어떠한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유행만을 좇는 모습,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비웃음, 경제력에 의한 빈부 격차, 놀고먹는 자들의 확산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들이다. 이런 풍경은 검약을 미덕으로 삼던 중세 이념과 분명히 다른 현상이다.

사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를 지향한다. 보편이 아닌 특수를 추구하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의 확산은 중세가 지향한 보편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유행만 좇는 행태를 변절로 인식하여 맘껏 조롱하면서 지조의 가치를 강조하던 중세 질서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사치 현상은 중세 이념의 해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도정에서 사치 풍조는 중세 사회의 권력을 새롭게 재편해 갔다. 중세는 신분적인 질서에 따라 권력이 나뉘어졌지만, 사치는 경제력이라는 또 다른 힘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한 것이다. “‘참담하게도’ 卿相과 견주고 있는 백성들의 화려한 비단옷과 車馬 장식으로 인해 尊卑의 절도가 없어진”¹³⁾ 세태는 경제력이 어떻게 중세 권력을 재편하고 있었던가를 적실하게 말해준다. 옷이든 거마든 액세서리든 겉으로 보면 재상이나 평민이나 차이가 없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경제력을 토대로 하여 치장하고 나서면 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사치는 중세 이데올로기와 중세 권력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사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을 금지시켜야만 했다. 정조가 직접 ‘사치에서 검소로 들어간다’는 ‘由奢入儉’ 네 글자를 내세워 나라 안팎에 반포한 것도¹⁴⁾ 이러한 이유에 있다.

12) 『正祖實錄』18년(1794) 7월 22일.

13) 『正祖實錄』 4년(1780) 10월 18일.

14) 『正祖實錄』 12년(1788) 10월 3일, 10월 19일.

그러나 사치 풍조는 바뀌지 않았다. 조정의 신하들부터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컨대 정조가 다리(加髒)를 버리라고 했을 때, 전에 洪麟漢이 ‘궁중의 모양새가 어찌고저찌고’ 하며 부정했던 일을 신하들이 굳이 거론한 것도 왕권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다.¹⁵⁾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하들의 반발이 아니었다. 서울이 상업도시로 전환하는 흐름, 그 자체였다. 그것은 이미 독이 터져버려 막을 수 없게 된 물의 흐름과도 때문이다. 도성의 酒肆가 지나치게 범람하여 술을 빚는 집이 각 統마다 적어도 2~3호나 될 만큼 많았고, 서울에 유입되는 쌀의 3분의 1은 술을 만드는 데 쓰였으며, 푸줏간의 소고기와 시장의 생선 대부분이 店의 술안주로 쓰인 것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¹⁶⁾ 牛禁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과소비에 따른 요인이 한 몫을 했다.¹⁷⁾

사치가 경제력을 가진 자들을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시킨 것처럼, 반대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구렁텅이로 내몰기도 했다. 앞의 인용문 ②에 서처럼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집에 살지만 다른 한쪽은 계딱지만한 집도 없고, 한쪽에서는 좋은 가죽옷을 입지만 다른 한쪽은 누더기 옷조차 입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물리도록 진수성찬을 받아먹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진다. 금주령에 내렸을 때, 가진 자들이 범법을 행하면 法吏들은 감히 조사조차 못하지만, 가난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그러면 철저히 잡아들였다.¹⁸⁾ 이런 상태는 분명 왕도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조선 왕조의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왕이 직접 다스리는 도성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야 했던 거지들,¹⁹⁾ 그들은 분명 사치 풍조가 만연한 사회의 이면 풍경이었다.

조선후기 사치에 대한 언술은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다. 史書와 문집류는 물론이고 다양한 잡록에도 사치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는다. 필기·패설·야담에도 사치의 형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이 세 장르는 글쓰기 방식에

15) 『正祖實錄』 12년(1788) 10월 3일. 伊時麟漢, 敢以宮樣等語, 乘間創發, 上以侵犯, 下以鉗制. 於是乎, 筵臣莫敢有異辭, 禁遂弛而令遂廢.

16) 『正祖實錄』 16년(1792) 9월 5일.

17) 김대길, 『조선후기 牛禁 酒禁 松禁 연구』, 경인문화사, 2006.

18) 『正祖實錄』 18년(1794) 10월 5일.

19)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의 앞의 글(2009)를 참조할 것.

따라 그 의미 지향이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필기는 據事直書에 토대를 두기에 사치에 대한 언술 역시 직접적이다. 패설은 사치 양상을 골계미에 환치한다. 반면 야담은 사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현상은 장르가 갖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장르적 차이가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펴고자 한다. 이제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²⁰⁾

3. 조선후기 사치의 장르별 문학적 형상화 양상

3.1. 사치에 대한 직접적 언술과 필기

成大中(1739~1809)의 『靑城雜記』에는 당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내용이 눈에 자주 띈다. 특히 거지·매품팔이·무뢰배·중·기생·노복 등 당시 마이너리티의 삶에 주목한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²¹⁾ 성대중이 바라본 마이너리티는 잘못하여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有錢則無事不成’²²⁾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다. 그런 반면 성대중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집단도 소개한다.

우리나라 풍속에 습관적으로 耳掩을 착용하는 것은 고려 때부터인데, 法服

20)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편찬된 필기·패설·야담집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논의를 집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시에 나온 작품집에 실린 이야기 중 현두 편을 중심에 두고 그 특성을 읽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는 방법을 택하든, 특정한 작품을 택해 그것을 일반화하는 간에 그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 장르가 지닌 글쓰기와 의미 지향이 어떠한가에 따른 경향이지, 각각의 작품이 지닌 의미방 구축이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여기서는 필기로 『정성잡기』, 패설로 『교수잡사』, 야담으로 『기문총화』를 주 텍스트로 삼는다.

21) 김준형, 앞의 글, 2009.

22) 『捕盜廳廳錄』 1842년 3월 29일.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91면 재인용.

처럼 아전들도 상관 앞에서 쓰고 다녔다. 근래에는 상하가 모두 揮項을 착용하고, 이엄을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중략) 萬縵이란 것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중략) 예전에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중략) 오늘날에는 중놈들도 모두 만선을 쓴다. 하지만 금지할 수가 없다. 이처럼 사치스러우니 풍속이 어떻게 피폐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백성들이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심지어 담비 꼬리의 가격은 은이나 인삼의 가격에 맞먹을 정도여서 만선 한 개의 값이 100냥도 넘는다. (중략) 작년에는 加髡를 금지하고 금년에는 담비가죽으로 만든 만선을 금지하였다. 이 두 가지보다 사치스러운 것은 없는데, 2년 사이로 그 폐단을 한꺼번에 혁파하였으니, 폐단의 근원과 사치스런 풍속을 차례로 제거하는 일이 이제 머리장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순박한 풍속으로 회복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니 만세토록 태평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에 기초할 것이다.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다.²³⁾

성대중은 방한구로 쓰이던 귀마개가 후대로 가면서 점점 사치스러워지는 풍속을 담담하게 써내려간다. 이엄에서 휘항으로, 휘항에서 다시 만선으로, 만선 중에서도 100냥金²⁴⁾ 넘어가는 것으로 점점 사치스러워진다고 밝혔다. 특정한 누군가가 고급스러운 귀마개를 했다는 식의 개인적 차원의 일화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사회 전반의 현상을 사실적으로 써내려갔다. 이 역시 필기가 지향하는 글쓰기 방식인데, 성대중은 이 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럼 잠깐 논의의 방향을 틀어, 이 작품에 필기의 글쓰기 방식이 쓰였다는 형식적인 논리를 찾는 데서 벗어나, 이 기록을 통해 성대중이 말하고자 한 바에 주목해 보자. 그것은 성대중이 사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당시 사치가 그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는가를 이해하고, 이해한 현실을 어떻

23) 成大中, 『靑城雜記』 3권 89화. 이 책은 김종태 등에 의해 번역된 것이 있어서 편리하다.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이 책 역시 번역본을 활용하되, 일부분은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하였다.

24) 만선 가격이 100냥을 넘는다는 것은 당시 화폐를 기준으로 할 때 있을 수 없을 듯도 하다. 하지만 당대 김홍도의 그림이 30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비로 만든 만선 가격이 100냥을 넘었을 수도 있을 듯하다. 화폐단위에 대한 문제는 박혜숙의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번역의 문제」(『민족문화사연구』 38, 민족문화사학회, 2008)를 참조할 것.

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성대중은 100년²⁵⁾이 넘는 귀마개를 쓰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담하게 기술한 다음, 이어서 조정에서 사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기에 앞으로는 순박한 풍속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도 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사치가 풍속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좀먹는 해악으로 인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어렸을 때에만 해도 돈을 직접 주고받는 일을 수치로 여겼는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돈이 없으면 야박하다 하며, 귀천을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돈을 채워주기를 마치 장난감 주듯 한다.²⁵⁾ 그에 따라 “친구가 미인보다 못하고, 사람이 가족보다 못한”²⁶⁾ 세태가 되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사치에서 그것을 찾았다. 사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평민은 굶어서 죽고 귀족은 몰락하여 멸망할’²⁷⁾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아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孟子가 말했듯이 백성의 부모라 할 임금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주린 빛이 있고 들에 굶어 죽는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도 사람이 미워하거나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행하면서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²⁸⁾

25) 『청성잡기』 4권 40화.
 26) 『청성잡기』 4권 58화. 是爲友輕於色, 人輕於蓄耶
 27) 『청성잡기』 3권 39화. 이덕무는 이 책에 논평처럼 간략하게 자신의 느낌을 적어 놓았는데, 이 글 후미에는 다음처럼 적고 있다. “근래에 한 세도가에서 떡국을 만들면서 사람의 五官과 四肢를 모두 구비한 어린아이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하였다고 한다.” 이는 병을 치료하거나 장수하기 위한 주술적인 행태일 터이지만, 그 양상이 반인륜적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뢰배들이 남성의 양물과 여성의 음부를 도려가는 일도 있었다.
 28) 『孟子』 <梁惠王章句上>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曰: “以刃與

사치 풍조는 백성들에게 恒産을 가질 수 없게 한다. 혼례나 상례를 당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의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비웃으며 욕하고 비루하고 인색하다며 지목하기에 결국 받을 팔고 문서를 잡히더라도 사치스럽게 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내몰린다.²⁹⁾ 그런데도 임금이 그런 풍토를 보고도 묵과하는 것은 백성의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다. 백성의 부모 될 자격조차 없다. 사치 문제와 관련하여 신하들이 『맹자』 이 대목을 빈번하게 인용하며 주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풍조를 직접 보고 겪은 성대중은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사치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곧 왕도정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청성잡기』에 당대의 다양한 문제를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거사직서라는 문학사가의 입장에서 본 당연한 글쓰기였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치 풍조를 기록해 놓은 것에 비해 그 해결 방안은 실망스러우리만치 원론적이다. 조정에서 사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가 기록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것은 현실 정치를 하는 자들의 몫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대중이 『청성잡기』에 이 이야기를 수록한 것은 그가 정치가로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단지 문학사가로서 당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 더 충실해 있었다. 그래서 그가 내릴 수 있는 해답 역시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치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기 보다는 사치의 폐해에 대해 다양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독자 나름대로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필기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만하다. 필기는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政, 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曰: “庖有肥肉, 廄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獸相食, 且人惡之, 爲民父母, 行政, 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

29) 『正祖實錄』 3년(1779) 11월 27일.

독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열어두기 때문이다. 사치가 갖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으면서도 그 해결 방안이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현실 문제를 받아들이는 필기의 글쓰기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3.2. 사치의 골계화와 패설

성대중은 사치를 부정하면서 왕도정치를 펼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사치라는 특정한 현상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해답을 독자 스스로 찾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필기라는 장르가 갖는 글쓰기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그려내되 그 미의식을 골계미에 둔 패설은 이와 다른 글쓰기를 택한다. 그리고 사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 ① 시골 놈 오막돌이는 시골에 살았는데 집이 부유하고 자본이 많았다. 호랑이를 잡아서 堂上이 되고 納贖하여 嘉善大夫가 된 후로는 머리에 금관자까지 붙이고 다니는데 그 행동거지가 의젓하였다. 이웃 마을에는 양반들이 자못 많았다. 춘궁기를 당하면 오막돌이의 집에 가서 “오동지”라고 하면서 곡식과 돈을 빌렸다. 그러나 추수가 끝나 주머니에 곡식이 다소 남아 있어서 오동지에게 빌릴 게 없어지면 이 가난한 양반들은 반드시 “이웃 상것 오막돌이”라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부를 때에는 ‘봄에는 오동지, 가을에는 오막돌이’라 하더라.³⁰⁾

張漢宗(1764~1815)의 『禦睡新話』에 실린 <春號同知>다. 위 이야기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경제력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고 있는가를 잘 그려내고 있다. 양반들은 중세적인 질서에서 보면 오막돌이보다 신분적인 우위에 있다. 그렇지만 경제력이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향촌의 양반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오막돌이를 부르는 호칭도 ‘오동지’

30) 張漢宗, 『禦睡新話』, <春號同知>. 鄉漢吳莫亨, 居于鄉谷, 家富多錢, 捉虎而爲堂上, 納粟而爲嘉善後, 鬻着金環, 而行身儼然. 隣里多有兩班, 當窮春飢困之時, 則往其門外, 呼之曰: “吳同知” 乞糧貸錢而去. 秋收後, 囊有餘糧, 而無可借於吳同知, 則諸貧班言必稱隣漢吳莫亨. 人都叫他, 春吳同知, 秋吳莫亨.

와 ‘상것 오막들’을 넘나든다. 그들이 가난할 때에는 촌놈에게 굶질거리면서 예우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낮잡아 본다. <춘호동지>에서는 당대 경제력이 지닌 힘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한바탕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실 그 이면에는 필기에서 직접적으로 당대 현실을 보여준 것만큼 심각한 사회의 단면을 짚어낸 것이다.

<춘호동지>는 경제력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 가는가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찬자는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해답조차 제시하지 않는다. 상놈이었던 오막들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권력을 가졌고, 머리에는 금관자까지 붙이고 다녔다. “사치가 유행처럼 되어 무절제한 소비가 날로 더 늘어나 시정배의 巾服이 관복의 모양과 거의 같고, 하인들의 袍鞋가 사대부들의 양식과 같은”³¹⁾ 풍조가 시골에까지 번져 있음을 찬자는 분명히 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단지 그 현상을 우스갯소리로 풀어낼 뿐이다. 이는 찬자가 이런 풍조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였거나, 굳이 그 풍조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때문에 패설에서는 사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의 중심 소재로 드러내놓지 않는다.³²⁾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대 경제력에 의해 호칭이 바뀌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한바탕 웃음으로 풀어낼 뿐이다.

그렇지만 경제력이 권력을 만들고, 또한 그것이 인륜과 도덕까지 붕괴되는 현상을 보는 것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거창하게 왕도정치와 같은 그런 거대 담론을 논할 처지가 아닐지라도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반인륜·부도덕적인 양상은 차라리 웃어넘겨버리고 싶은 코미디로 인식하고 싶었다.

- ② 예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재물을 몹시 아껴 사람의 도리를 거의 갖추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웃마을에 가는데 마침 장마 때여서 물이 불어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냇물을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빨라 흐

31) 『正祖實錄』 20(1796)년 4월 8일.

32) 실제 패설에서 사치 자체는 화제가 되지 않는다. 사치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 직접 비판하기에는 당시 사회의 흐름이 너무 거셌고, 그에 따라 사치 자체가 이야기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찬자들은 사치스럽게 사는 삶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그런 삶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르는 물에 휩쓸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마침 물가에는 월천꾼이 있기에 아들이 급히 그를 불렀다. “내 아버지가 물에 빠져 몹시 위급하니 급히 구해주시면 내 마땅히 후한 값을 주겠소.” “물살이 세니 나도 어렵겠소. 내게 석 냥을 준다면 구해보지요.” “당신은 이런 일에 익숙해서 사람 구하는 일도 잠깐이면 될 터인데 부르는 값이 몹시 많군요. 그냥 한 냥으로 합시다.” (중략) 이러는 사이 아버지는 마침내 빠져죽고 말았다.³³⁾

③ 예전에 한 사람은 자수성가하여 집안이 조금 부요하였지만 성격이 자못 인색하였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식들이 장례비용을 지나치게 쓸까 염려스러워 큰 아들에게 물었다. “내가 죽은 후에 初終 葬需를 너는 어느 정도로 요량하느냐?” “웃, 이불, 棺槨 등과 장례 및 못자리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삼사백금은 될 듯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이 무슨 말이나? 너는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다.” 하고 물리쳤다. (중략) 셋째 아들이 말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푼도 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두 냥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무슨 계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폭 삶아서 시장에 내놓으면 네댓 냥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찌 돈을 얻는 방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략)³⁴⁾

<춘호동지>와 달리 『攪睡襍史』에 실린 <救父爭價> · <三子獻見>은 경제력이 윤리와 도덕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도 돈을 두고 흥정하는 아들, 장례비를 아끼려고 아버지의 시신을 고아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아들. 두 작품은 자본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예의까지 앗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고발한다. 그런데

33) 『攪睡襍史』, <救父爭價>. 古有父子二人, 性甚惜財物, 殆無人理也. 一日, 父子同往隣邑, 時置漲潦之時, 渡一川, 父先渡之, 水勢甚急, 沉入流下, 將至死境. 川邊適有慣水越川軍, 其子急謂越川軍曰: “吾父方入水危急, 即爲救出, 則當給厚價也.” 越川軍曰: “水甚急, 吾亦難之. 給我三兩錢 則當拯出也.” 其子曰: “君以慣水之人, 不過暫時救出之事, 呼價太重, 當給一兩矣.” (중략) 如是之際, 竟至沈沒.

34) 『攪睡襍史』, <三子獻見>. 古有一人, 自手成家, 家稍饒而性甚吝. 死後或恐治喪過濫, 問第一子曰: “我死之後, 初終葬需, 汝之料量, 當費幾何?” 對曰: “衣衾棺槨, 營葬治山, 小不下三四百金矣.” 父瞋目大驚曰: “此何言也? 汝乃敗家之子也.” 叱退之. (중략) 三子對曰: “子意則父親死後, 非但無分錢所入, 還有錢兩添益之道矣.” 父喜問曰: “汝有何計乎?” 曰: “父親死後, 淨洗爛烹, 出往市場, 則可得四五兩錢, 豈非錢兩添益之道乎?” (하략)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으려만, 작품에서는 아들의 이런 말을 들은 후 아버지의 반응을 덧붙인다. ②에서는 “석 냥은 너무 지나치고도 지나치구나. 더 주지는 말아라.”라고³⁵⁾ 하며 끝내 물에 휩쓸려가고, ③에서는 “네 말이 가장 옳구나. 그래도 외상을 금해서 되돌려 받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옳고도 옳을 게다.”라고³⁶⁾ 대꾸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지당하다고 말함으로써 아들의 행위는 더욱 정당화된다.

이는 실재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재한 일을 과장되게 드러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는 찬자가 경제력이 중세 질서를 붕괴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인륜까지 저버리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 오히려 이야기를 좀 더 과장되게 이끌었던 데서 비롯된다. 『교수잡사』의 찬자 역시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 인륜과 도덕까지 붕괴되는 잘못된 흐름, 잘못된 풍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잘못된 풍토를 맘껏 조롱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쳐버린 듯한 당시 세태에 대해 이렇게 풍자를 가함으로써 자기위안을 찾았던 것이다.

때론 『어수신화』 수재 <勒生小斂>처럼, 찬자는 이야기 안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심판이란 것이 파산에 그칠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단순한 문제인가? 매일같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들을 모아 술과 안주로 먹던 8~9사람의 부자들의 놀이는 가난한 주인공을 ‘왕따’시켜 놀리는 일이다. 주인공은 이들의 조롱거리로 지내며 먹고 산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들은 주인공에게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소위 ‘시체놀이’를 벌인 것이다. 일상적인 놀이가 지켜워진 부자들의 놀이도 점점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런 부자들에게 주인공이 벌인 복수는 이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돈을 빼돌려서 마침내 자기도 부자가 되는 일이다. 이야기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주인공이 주인공을 속이는 트릭을 통한 웃음을 제공하

35) 『攪睡裸史』, <救父爭價>. 三兩之說, 太過太過, 更勿加給.

36) 『攪睡裸史』, <三子獻見>. 汝言最當然, 切勿給外上, 俾無收拾之難, 至可至可.

는 데서 그칠 뿐이다.³⁷⁾ 사치스러운 세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그렇고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게다. 실제 <念弊爭價>를 보면 그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예전에 한 재상이 집을 보수하려는데, 마침 한 사람이 기와를 싣고 와서 사라고 요청하였다. 재상이 사려고 하니, 기와장수는 한 장에 4푼을 달라고 한다. 그러자 재상은 3푼으로 하라고 하며 직접 가격 흥정에 나섰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다. 그 때 문객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조용히 재상에게 나아와 말했다. “기와 가격 한 푼을 더 주어도 대단하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소 가격 흥정에 나서니 대감님 체면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사치의 말대로 쫓겨 보내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재상이 웃으며 말하였다. “자네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군. 내 어찌 한 푼이 아까워서 그러고 있겠는가? 내가 만약 4푼을 주고 그것을 사면, 저놈들은 반드시 나도 이 가격으로 샀다고 하며 가격 담합을 할 것이니 그 해악이 막대할 것이네. 여항에서 벌어진 이 일이 비록 작지만, 그 피해를 고려해 보면 큰 일이 아니겠느냐?”³⁸⁾

『교수잡사』의 찬자가 꿈꾸는 세상은 재상과 같은 상층 인물이 직접 나서서 몸소 검약함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 마지막에 논평처럼 쓴 말, “이 이야기는 그 가격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치를 미덕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폐단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지라.”³⁹⁾ 말은 당시 사

37) 그렇다고 찬자가 당시 사치스러운 세태가 지닌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실제 찬자는 이야기 중간에 “近來富家之妻妾, 邀巫禱神, 請替誦經, 無端費財, 至於破家之境者, 多矣.” 라는 말도 한다. 파산할 만큼 지나치게 호화롭게 꾸닥거리나 굶을 하는 세태를 찬자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8) 『攬睡褌史』, <念弊爭價>. 古有一宰相, 修補家舍, 適有一人, 載瓦來而請買之. 宰令買之, 而瓦主則每張討四分, 宰則定三分, 親執爭價, 移時不已. 看役門客從容進曰: “瓦價一分之間, 得失不大段, 親執爭價, 恐損體面, 依其言給送, 伏未知如何如.” 宰笑曰: “君知其一, 未知其二. 豈惜一分錢而然也? 吾以若四分買之, 彼漢輩必以某大監亦以此價買之, 援以爲例, 害及措大. 閭巷間, 其事雖小, 其敝顧不大耶?”

39) 『攬睡褌史』, <念弊爭價>. 此不惜不價, 以侈美爲主, 不念世間生敝之類者, 足爲矜式.

람들이 사치를 미덕으로 삼는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교수잡사』를 비롯한 다른 패설집에서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처럼 억울한 시대에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자들이 택하는 것이 골계적인 글쓰기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패설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그려내되, 그 미의식을 골계미에 둔 장르다. 인간의 행동을 모방한다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 단면들의 집대성인 셈이다. 그 단면을 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 패설이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제력에 의해 새롭게 권력이 만들어지는 양상, 경제력에 의해 인륜과 도덕이 붕괴되는 양상 등은 앞서 성대중이 보았던 사회와 동일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패설집의 찬자는 성대중처럼 있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그들은 있는 사실을 과장되고 일그러지게 그림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한바탕 웃고, 그 웃음의 이면에서 비판적인 흐름을 읽어내도록 했던 것이다.

3.3. 사치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야담

야담에서 사치를 보는 시각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그 한 방향은 사치에 대한 부정이고, 다른 한 방향은 사치에 대한 부러움이다.

사치가 나쁘다는 관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부류와 구별 짓기 위해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양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조선조 사람들도 사치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늘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야담에서 근검하게 생활하는 사람,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당연하다. 致富와 가난 구제를 동시에 구현한 최생,⁴⁰⁾ 인간의 도리까지 끊어가며 10여 년간 노력하여 치부한 許弘⁴¹⁾ 등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근검’을 기저에 두고 부를

40) 『紀聞叢話』 1권 161화.

41) 『紀聞叢話』 3권 38화.

생성하는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다. 따라서 야담에서 사치를 부정하고 검소를 긍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月沙 李廷龜의 夫人은 판서 權克智의 딸로 덕행이 있었다. 두 아들 白洲와 玄洲도 모두 현달하였다. 그러나 집안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게 하였으며 화려한 옷은 몸에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아무 공주의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자, 임금의 명으로 조정의 모든 부녀들이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든 집 부녀들은 다투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하던 터라, 이날 잔치에는 보석과 비단옷이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았다. 시간이 지나 한 교자가 오더니 한 늙은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녀는 갈옷과 베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거칠고 저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막 당에 오르려 하니 주인인 공주가 바빠 내려가 맞이하니, 나이 어린 부녀자들은 손가락질하며 웃다가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⁴²⁾

검소함을 원칙으로 삼아 생활하던 李廷龜의 부인이 公主의 잔치에 참석하였지만, 그 차림새가 변변찮다. 반면 주변에 있던 다른 여인들은 사치스럽고 요란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터다. 따라서 그런 여인들이 낡고 거친 옷을 입은 이정구의 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하지만 『紀聞叢話』의 찬자는 검소한 이정구의 부인의 손을 든다.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소함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정답’으로,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는 사치에 대해 그리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사치가 갖는 사회적 피해나 해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치가 내포한 사회적 해악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판했던 필기·패설과 조금 다른 양상이다. 『기문총화』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검소함을 숭상하는 그 자체이지, 사치의 폐해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고발하기

42) 『紀聞叢話』 2권 5화. 月沙夫人, 權判書克智女也. 有德行. 二子白洲玄洲, 皆顯達, 而治家儉素, 華麗之衣, 未嘗近於身. 時某公主家迎婦, 自上命滿朝命婦, 皆赴宴. 諸家婦女, 競以華侈相尚, 伊日之宴, 珠翠綺羅, 奪人眼目. 追後有轎子入來, 而一老婦人, 扶杖而來, 葛衣布裳, 麤劣極矣. 將升堂, 主人公主, 倒屣下迎, 年少諸婦, 莫不指笑而驚訝.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야담에서는 대화회적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야담에 그려진 사치, 적어도 『기문총화』계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는 부정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발명까지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야담집 편찬자들도 사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컨대 ‘婚喪으로 진 빛이 산더미만 해서 方伯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⁴³⁾ 대목 등을 보면 집안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소비하는 행태를 비판할 만도 하다. 하지만 사치 자체를 대상에 두고 이야기하거나, 이야기 중간에 사치가 안는 문제를 비판적이지 않는다. 그것은 야담이란 장르가 멈춰진 특정한 한 단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 하겠다. 야담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치를 포함한 제반 사회 문제 역시 주인공의 삶을 드러내는 배경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치가 나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한, 야담에서 사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대상, 즉 찬양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생을 이끌고 行閣으로 들어가 화원으로 나아갔다. 화원의 둘레는 수백 보 인데, 사방에는 분칠한 담장이 둘러 있었다. 담장 안에는 연못을 만들어두었는데, 못가에는 두세 사람 정도만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매어 있었다. 이에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데 연꽃이 높이 솟아 깊이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거슬러 그윽한 향내가 진동하는 곳으로 들어가니 우두커니 섬이 솟아 있는데, 文石으로 축대를 쌓고 가운데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생에게 오르라 하니, 생은 배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다 오르니 열두 난간을 세웠는데, 茵席이 찬란하고 주렴이 영롱하였다.⁴⁴⁾

43) 安錫傲, 『雪橋漫錄』. 婚喪之債如山, 將求之方伯矣.

44) 『靑邱野談』 권8 <結芳緣二八娘子>. 因攝生而起携, 入行閣, 轉倒一座花園, 廣周數百步, 四圍以粉牆約之. 牆之內, 滿鑿池塘, 小艇蟻其深, 劣容兩三人. 乃同乘而濟, 菡萏挺立, 尺尋莫辨, 溯入異香中者, 差久鳩巖斗立, 以文石築起, 中設階梯, 以達其上, 生下舟登塔, 塔盡而有十二闌干,

『靑邱野談』에 실린 <結芳緣二八娘子>의 한 대목이다. 역관을 하며 致富한 金壽이 과부가 된 딸을 재가시키기 위해 보쌌던 채생을 이끌어 딸에게 데려가는 장면 중의 일부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집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였다. 여기에 묘사한 집 장식은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그 본질은 실제와 큰 차이가 없다. 실제 『실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사치 풍조가 만연하여 한 나라의 재물로 바닥이 없는 골짜기를 메우듯하여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제택만 가지고 말해보면, 조금이라도 현달했다고 하는 관리는 집을 새로 개축하여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짓지 않는 자가 없으며, 집 한 채의 가격이 5~6천금으로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성 안에는 층층이 지은 집들이 이어져 있고, 강호에서는 곳곳마다 서로 바라다 보이게끔 하는 등 합쳐서 수십 구가 되는 자도 왕왕 있습니다.⁴⁵⁾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령이 보여준 사치 행각은 당시 재력가들이 행한 사치의 한 모습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야담집 찬자는 비판이 아닌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사치스러운 집뿐만이 아니다. 채생이 김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결방연이팔낭자>에는 김령이 입은 옷, 김령이 먹는 음식, 김령이 가지고 있는 장식품 등 그 모든 것이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야담이란 장르가 지닌 특성에서 비롯된다. 야담은 특정한 하나의 단면, 특정한 한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야담은 그들을 모두 아우르는 등장인물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놓여

茵席炳爛, 簾箔瑩透

45) 『正祖實錄』 2년(1778) 7월 20일. 舉世之間, 侈汰成風, 使一國之財, 填無底之壑, 以至於莫可救藥之地. 以言乎第宅, 則稍以達官爲稱者, 未有不新起改構, 務以穹崇相勝. 甚至於一屋之價, 或爲五六千金, 而猶爲不足. 城闈之內, 藥纍疊建, 江湖之上, 在在相望, 合爲十數區者, 往往有之矣.

있기 때문에 당대 현실이 담아낸 부정까지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분명히 사치는 나쁜 것이지만, 실재한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성장 과정을 담아낼 때에는 그 역시 배경으로 존재하기에 사치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⁶⁾ 야담에서 보이는 사치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야담이라는 장르가 지닌 특성에서 기인한 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4. 사치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본 필기·패설·야담의 거리 — 맺는 말을 대신하며

사치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도정에서 만들어진 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보편주의가 지배했던 중세 질서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정치를 맡은 신하들은 “위에 있으면서도 몸소 솔선하여 계도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치의 물결을 방조하기까지 한다.”⁴⁷⁾ 그러니 정조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 ① 조정에 있는 擧紳들은 모두가 글을 읽어 옛 법을 사모하기 때문에 염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식견이 있는데도 오히려 폐단을 바로잡아 풍속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더구나 閭巷의 閭門 안에 있는 부인과 여자들에게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제거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⁴⁸⁾

‘알만한’ 선비들조차 사치 풍조를 관망하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그것을

46) 이러한 현상은 고전소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각종 ‘치레’는 호화롭고 사치스럽다. 이것은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소설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역시 사치는 당대 현실을 반영한 장식품으로만 인식한 것이고, 그것이 지닌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내지는 못하였던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 없는 것은 고전소설 역시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47) 『正祖實錄』 3년(1779) 2월 25일.

48) 『正祖實錄』 3년(1779) 2월 25일.

금하라고 요구한들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정조는 고민했다. 이런 정조의 답답함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욱 더 심하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당시 복식과 음식 문화의 실태가 얼마큼 사치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 ② 대체로 다리를 엮는 양식이 禮經에 보이는가, 法書에 보이는가. 그 근본을 따져보면 본래 아름다운 제도가 아니다. 처음에는 머리털을 한데 묶는 장식이었던 것이 문득 머리를 중하게 하는 장식이 되어 서로 앞 다투어 과시하기 위해 크게 만들었으므로 그 값이 더욱 높기 치솟아 사치스러운 자는 家産이 기우는 것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는 거의 인륜을 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폐단이 이러한 극한에 이르렀으므로 바로잡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온 나라 안의 부녀자들의 다리 엮는 것을 일체 없애라. 다리 엮는 것을 없애는 것은 오로지 사치를 없애기 위함이다.⁴⁹⁾
- ③ 여염의 부녀들이 경사스러운 모임으로 손님을 청할 때는 綵花와 金勝이 좌우에서 번쩍거리고 쌓아놓은 유밀과의 높이가 한길에 넘는 등 날로 심해지고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光廟 원년에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연회 때에만 유밀과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우리 先朝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혼례나 사대부의 혼례를 막론하고 모두 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금색 은색의 露布花를 사용하는 자는 형장 80대로 처벌하였습니다.⁵⁰⁾

②는 정조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진 다리를 금지하기 위해 말한 대목이고, ③은 金翰東이 음식에 대한 사치의 지나침을 상소한 것이다. 사치는 음식과 복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지나친 행태를 금한다는 금석 같은 법령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지는 오래전부터였다.⁵¹⁾ 이런 상황은 분명 중세 보편주의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붕괴할 만큼

49) 『正祖實錄』 12년(1788) 10월 3일.

50) 『正祖實錄』 20년(1796) 11월 19일.

51) 『正祖實錄』 20년(1796) 4월 25일. 음식에서 허비하는 것이 의복보다 심하며 더구나 유밀과

심각한 문제였다. 『실록』을 비롯한 문집에 사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인 셈이다. 그것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다.

현실을 모방하여 그려내는 문학에서도 사치 풍조를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반영 정도는 문학 장르에 따라 달리 그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문학 장르가 지향하는 특성에 따라 결과라 할 만하다. 사치 풍조는 분명히 역사적 현실이고 중세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지만, 그것이 문학 작품에 반영될 때에는 적절하게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왜곡이야말로 문학이 지닌 특성이며,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 글에서 확인한 세 장르에서도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되, 그 시각은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필기는 거사직서라는 원칙 아래 당대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원론에 그쳤다. 그것은 필기의 찬자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것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도 있었다. 역사 자료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마련된 필기라는 장르를 편찬하는 찬자가 굳이 그것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필기에 쓰인 기록은 당대의 현실을 가장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을 담아내고 있었다.

패설의 찬자는 필기의 찬자가 문제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봤던 것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힘으로 사회의 어떤 현상도 바꿀 수 없었던 찬자는 일부러 사실을 과장되고 일그러지게 그린다. 그렇게 희화화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현상을 맘껏 웃게끔 한다. 부모를 고아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등 일부러 특정한 현상을 그로테스크하게 부각시킨 것은 찬자의 억울함이 그만큼 컸음을 뜻한다.

필기와 패설 두 장르는 특정한 사회 현상 중에서 한 단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만 관심을 보일 수 있었다. 반면 야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야담이란 장르가 인간의 행동보다는 인간의 삶을 모방하여 그려내기 때문이다. 이야기 처음에 등장한 인물과 이야

에 대한 금령은 본래 금석같은 법조문이 있으나 기강이 서지 않아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의복제도와 다름이 없다.

기 끝에 나오는 인물의 변화에 무게를 두다보니, 야담에 투영된 사치 현상은 그 자체로 이야기될 수가 없었다. 사치 풍조는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가 나쁘니 근면하게 살라는 식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아닌 이상, 야담에서 사치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야담에 등장하는 부자들의 집·의복·음식들이 화려하게 그려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야담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의식주는 당대 현실에 대한 반영이지만,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동경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사치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간을 구별 짓고, 타자화하는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는 어떠한 답을 주었고, 문학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따져보는 일은 단지 특정한 문제가 문학에 반영되었다는 ‘해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학이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자 했는가를 엿보는 문제이며, 또한 그를 통해 미래를 엿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문헌

1. 자료

- 安錫徹, 『雪橋漫錄』.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羲平, 『溪西雜錄』.
『審理錄』.
『紀聞叢話』(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6, 계명문화사).
『靑邱野談』(이우성·임형택 편, 『청구야담』 상·하, 아세아문화사, 1985).
민속학자료간행위원회, 『고금소총』, 유인본, 1958.
成大中, 김종태 외 옮김, 『국역 청성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 일조각, 1973~1978.
홍경모, 이종묵 옮김,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9.

2. 논저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김대길, 『조선후기 牛禁 酒禁 松禁 연구』, 경인문화사, 2006.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_____, 「청성잡기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학사연구』 40, 민족문학사학회, 2009.
유승희, 「조선후기 청계천의 실태와 준천작업의 시행」, 『도시역사문화』 3, 서울역사박물관, 2005.
박혜숙,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번역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조 광, 「18세기 전후 서울의 범죄상」, 『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1996.
한국고문서학회 편,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The phase of conspicuous consumption and its literary description during the late of Choseon dynasty

Kim, Joon-Hyeong

The main characteristic of Seoul is a administrative city as the capital of Choseon before 17th century. But After the 17th century, it changed to a commercial city. Seoul ruled by not only political systems but the economic systems. And also, the moods of Seoul change according to the commercial conditions.

This change meant of the emergence of new a power ruling the society. The class having economical power took the conspicuous consumption. It wa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functional consumption in former ages. And also, this social phenomenon was contrary to the value and principles of the Middle ages. So the king of Choseon dynasty fail to preventing from the change. It was the huge and inevitable trend of history.

This trend showed in literature. And it diversified according to genres of literature. There was disinterested attitude toward the trend of conspicuous consumptions in Pilgi, but exaggerate the trend in Paeseol and ridiculed the social moods. By the way in Yadam, there were criticisms and yearning for conspicuous consumptions. These differences were caused by diverse reflections of the real society.

Key words: conspicuous consumption, consumption, Pilgi, Paeseol, Yadam,
Middle ages

접수일자 : 2009. 7. 7 심사기간 : 2009. 9. 1 ~2009. 11. 20 게재결정 : 2009. 11. 20
